지역 소식통

부안군,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접수

부안군은 이달 24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부안군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며 살아보기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다.

부안에서 살아보기는 올해 5가구 8명(2명 3가구, 1명 2가구)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는 지방소멸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서면 청호수마을 권역활성화센터에서 진행되며 영농실습, 귀농귀촌선배와의 만남, 부안군 문화・관광지 탐방, 농업관련 관공서 방문, 마을 주민과의 소통시간 등의 내용의 살아보면서 부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작년에는 주로 부안군에 자리 잡은 선배 귀농귀촌인들과의 간담회 및 농장방문 등을 위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고창군이 관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 귀농・귀촌인, 구직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2023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면 동당 최대 2500만원(자부담 5% 이상 필수)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8동를 선정하여 무상임대를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추가로 4동을 더 확보하여 총 12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4일까지 직접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산림복원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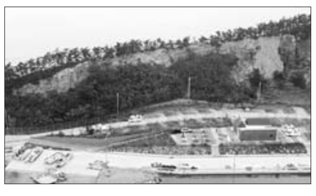
위도항 채석훼손지 2개소 2024년까지 복원 추진

부안군이 위도면 위도항에 인접해있는 채석훼손지 2개소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위도항과 인접하여 여객선을 타고 위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으로 1989년 위도항을 만들기 위해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토석채취가 이뤄진 지역으로 대규모 채석으로 인한 훼손이 발생되었다.

그동안 복원이 미흡한 상태로 경관훼손 및 산지붕괴가 우려되어 위도면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부안군은 이번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절개지의 녹화 및 사면안정화를 통한 경관개선과 안전시설 및 휴식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선정으로 단절된 산림생태적가치를 회복하고, 자연경관 보전 및 산지안정성을 도모하여 위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봄철 산불 방지 예방, 신속한 진화시스템 구축'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신규 국비 사업 발굴 · 벚꽃축제 기간 안전대책 수립도 강조

이학수 시장이 13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입암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산불 방지와 초동 진화 체계 구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폐기 영농자재 소각 시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종 건설사업의 공사 일정을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해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업 일정을 공유해 공사에 대한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벚꽃축제 기간 행사 안전대책과 원활한 교통 대책, 사고 시 대응 대책 등을 철저히 세워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과 가뭄 대비 물 사용량 줄이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3년 군민 행복 고창포럼 첫회, '스타강사' 김미경 초청 강의

'스타강사'인 김미경 강사가 지난 11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고창군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주제로 가슴 따뜻한 메세지를 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멘토인 스타강사 김미경은 자기 계발 멘토이자 162만 구독자를 보유한 MKTV 크리에이터,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 MKYU 대표이다. 주요 저서로는 '김미경의 마흔수업', '언니의 독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등이 있다.

김미경 강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부를 묻듯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나 지금 괜찮아?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평생 간절히 바랐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과 가치를 되물어야 하고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해 김미경 강사의 경험담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풀어내, 고창군민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김미경 강사는 오프라인으로 대중앞에서 많은 강연을 하였지만,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디지털 세상에 대한 공부를 통해 디지털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고창군민들에게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공부'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강연은 고창군 공식 유튜브계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재시청이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발전을 이끌 군민 맞춤형 특강인 고창포럼 첫회 강좌에 국민멘토인 김미경 강사의 강의는 군민들의 가슴속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민이 신뢰 · 만족하는 선진행정"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전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13일부터 오는 16일, 17일에 걸쳐 해당 관과소장, 읍면장과 함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2022년 하반기에 40여개 사업장을 방문한데 이어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현장행보로 2023년 창신비상 군민소통대화시 건의된 주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안을 찾아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행정은 첫째날 중복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셋째날 숫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까지 총 17개의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한다.

이정석 부군수는 "국내외 경제위기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선진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해경, 위도면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5분경께 부안군 위도면에 안와골절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위도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80대)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귀가 중 운전 중이던 경운기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작동불능으로 도로 옆의 밭으로 추락했다는 것.

안와골절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는 위도보건지소의 신고를 접수하고,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포항으로 이송 후 119에 인계했다.

또한 지난 11일 오후 3시 26분경께 위도 인근에서 낚시 활동 중이던 레저보트 B호(1톤, 모터보트, 승선원 2명)가 연료가 고갈되어 해로드(海-Road) 앱으로 신고 접수한 부안해경은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즉시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112정을 현장에 급파, 표류하고 있는 레저보트 B호를 발견하고, 승선원 2명의 안전과 레저보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과 안전계도 조치 후 안전하게 입항 할 수 있도록 휘발유 20리터를 전달했다.

이헌곤 경비구조과장은 "바다 출항 전 연료유와 항해 장비 등 각종 장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개인 부주의나 안전 점검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업인 안전 보험… 안전 영농활동 지원

정읍시가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부상・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가 상품별로 0.3%에서 3.4%까지 인하됐다.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유형에 따라 47,120원에서 146,75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